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박예랑¹ 이주연²

Ye Rang Park¹ Joo-Yeon Lee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young children's tempera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their mother's parenting stres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ther two variables.

Methods: A total of 304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at lived in Gwangju and Jeollanamd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obel test.

Resul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aptability tempera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mother's parenting stres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other variables, whereas regularity temperament had only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motional regul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mother's parenting stress partially mediated between children's adaptability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mother's parenting stress is a very important factor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lso,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children's adaptability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order to improve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¹ 제1저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사

²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idscot@jnu.ac.kr)

key words temperament, emotional regulation, mother's parenting stress, mediating effe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 발달의 시기 중에서 유아기는 자기인식을 통해 자기주장이 점점 증가하고 다양한 외부

환경과의 교류로 사회적 존재가 되어 가는 시기이다. 더불어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과거에는 유아의 발달능력을 살펴보고자 할 때 주로 지적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는 인지능력이 발달에 있어서 다른 많은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여겨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지적능력의 측정결과로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1990년대 이후로는 정서적 측면이 관심을 받아왔고, 그 중에서 특히 정서조절능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박재운, 2013).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유아의 정서지능 및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강도연, 2015; 박진성, 박은희, 2010; 임지혜, 2014; 채영문, 2012; 한수정, 2016).

정서조절능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와 행동의 의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상황적 맥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Calkins, 1994).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은 영유아의 내적 자아와 외부 환경을 이어주고 사회적 적응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박재운, 2013). 실제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정서조절능력과 적응 간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즉,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유아는 공격성이 높고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이지 못하며 일상에서 자주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다(Denham & Burton, 2003).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도 높게 나타난다(박성연, 강지훈, 2005; 장미희, 이지연, 2011). 한편,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시기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만 2-4세 영유아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구분하는 부분에서 혼동을 보였으나(Denham, Zoller, & Couchoud, 1994) 만 5세가 되면 부정적이고 불쾌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이상의 문헌들은 긍정적인 정서조절능력 발달이 중요한 사회 적응 능력이라는 점과 유아기가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했던 연구들은 주로 유아의 기질, 부정적 정서 등 개인적 변인이나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 어머니의 정서적 표현 또는 정서수용태도 등을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다루어 왔다(김경희, 2004; 김현나, 이경남, 2008; 서혜린, 이영, 2008; 오희옥, 오선영, 김영희, 2007). 이 중 기질은 유아 개인의 정서적 반응의 강도 및 상황적 맥락에서 구별되는 유아의 성격 특성으로서(Derryberry & Rothbart, 1988)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주목 받아왔다. 또한 기질은 감정을 나타내는 강도의 차이나 정서를 조절하는 차이를 결정하는 정서발달의 기본적 요소라는 점(Rothbart & Bates, 2006)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박재운, 2013).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기질특성 중 정서성, 활동성, 적응성, 주의집중성 등 각 특성이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높은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반면(안라리, 2005), 수줍은 정서성은 낮은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된다(김지윤, 2007). 또한 만성적으로 짜증 또는 화를 내는 등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며(권연희, 2014) 충동적으로 행동하고(Eisenberg, Liew, & Pidada, 2001) 타인의 긍정적인 제안을 상대적으로 덜 수용하며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또한 두

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 표현의 빈도가 높은 유아는 행동의 억제를 많이 시도하는 특징을 보인다(Rothbart, Ahadi, & Evans, 2000). 기질특성 중 높은 활동성도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현주, 2009; 임희수, 박성연, 2002). 높은 활동성 기질은 정서를 인식하고 억제하며 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등의 정서조절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황운세, 2007). 한편, 새로운 자극과 상황에 쉽게 접근하며 적응이 빠른 접근·융통성의 기질은 유아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감소시키며 적응적 정서조절을 증가시킨다(이경님, 2009). 한 가지 활동에 오랜 시간 집중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주의집중 기질의 경우 높은 수준의 주의집중 기질은 높은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임희수, 박성연, 2002).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은 유아의 기질이 그들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보여준다(Eisenberg et al.,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이러한 관계를 전제로, 그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유아에게 어머니란 가장 가깝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으로,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에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러한 어머니의 중요성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양육 행동은 물론,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나 성격특성도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된다(서석원, 이대균, 2013). 즉,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제로 Crnic과 Greenberg(1990)는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며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조절능력을 높이는 원인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문혜련(1998)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중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자녀들 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자녀들이 사회적 능력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어머니가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녀의 정서발달 및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결과들(김현미, 2004; 유우영, 이숙 1998; Abidin, 1992)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유아는 발달적 특성상 부모의 보살핌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므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며 이는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박진아, 2011).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성향과 관련된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 중 자녀의 기질은 주요한 원인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조운영, 2014).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높은 반응성(김은영, 2005; Crnic & Low, 2002), 높은 활동성(이수미, 민하영, 2007), 생리적 주기의 불규칙성(조용신, 정영숙, 2000) 등의 까다로운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한다. 허순금(2006)도 일상생활의 패턴이 불규칙하고 외부 자극이나 자신의 욕구 좌절에 대한 반응 강도가 강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늦고, 낯선 이에게 의심을 보이는 반면 활력이 넘쳐 활동성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어머니에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자녀의 특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까지 영향을 미쳐(허미혜, 이정자, 2010)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허순금, 2006),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어머니는 자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고(이정희, 2000),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거부적이며 강압적이며 권위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김미숙, 문혁준, 2005; 문혁준, 2008; 이영미, 2009; 이정희, 2000; 이주리, 2008).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현미, 도현심, 2004; 유우영, 이숙, 1998; Abidin, 1992). 유사한 맥락에서 최연희(2001)와 최영희(1990)는 아동의 기질이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하므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유아의 기질이 그들의 발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어머니 변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변인 간 관계구조를 밝히고 있다(김숙령, 최향준, 정경화, 이윤이, 2012; 이경님, 유혜선, 2014). 예를 들어, 김숙령 등(2012)은 기질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유아의 특성인 기질이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에서 야기되는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변인 간 구조관계에 대한 경험적 논리를 제공한다.

종합할 때, 자녀의 적응적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정숙과 두정일(2008)의 연구, 자녀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홍지은(2015)의 연구, 유아기에 나타나는 기질적 성향이 자기조절능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민혜영(2003), 최미숙과 김미숙(2005)의 연구,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이 부적 상관이 있다는 박진성(2012), 조안나(2012)의 연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차이를 연구한 김경하(20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임지혜(2014)의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질,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정서조절능력 3개 변인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인 간 매개모형은 기질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숙령 등, 2012)에 그 근거를 둔다. 한편, 기질에 대한 연구들은 기질의 하위요인에 따라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여준다(임희수, 2001; 박지숙, 2008; 박재윤,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녀의 기질 하위요인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기질의 하위요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소재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을 조사하였다. 유아의 어머니에게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회수되지 않은 질문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30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및 그들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304)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			연령		
남	160	52.6	만3세	68	22.4
여	144	47.4	만4세	99	32.6
출생순위			만5세	115	37.8
첫째(외동이 포함)	160	52.6	만6세	22	7.2
둘째이상	144	47.4	모 연령		
부 연령			29세 이하	47	15.5
29세 이하	20	6.6	30~39세	220	72.4
30~39세	170	55.9	40세 이상	37	12.2
40세 이상	114	5.9	모 학력		
부 학력			고졸 이하	76	25.0
고졸 이하	67	22.1	전문대졸 또는 대학 중퇴	121	39.8
전문대졸 또는 대학 중퇴	120	39.5	대졸(4년)	95	31.3
대졸(4년)	104	34.2	대학원 졸업	12	3.9
대학원 졸업	13	4.3	부 직업		
부 직업			무직/전업주부	130	42.8
무직/전업주부	1	3.0	계약직/일용직/단순노무직	14	4.6
계약직/일용직/단순노무직	22	7.2	생산직	4	1.3
생산직	46	15.1	자영업	22	7.2
자영업	92	30.3	일반사무/공무원/교사	80	26.3
일반사무/공무원/교사	87	28.6	전문직/고위관리직/기업주	34	11.2
전문직/고위관리직/기업주	28	9.2	기타	20	6.6
기타	28	9.2			

2. 측정도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용한 설문지는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척도는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보고하였다.

1) 기질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 Windle & Lerner, 1986)를 번안하여 재구성한 서주현(200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DOTS-R의 원 척도는 10개 하위 영역의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주현(2009)은 각 하위 영역별로 3문항을 추출하여 총 30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적응성, 활동성, 규칙성 3가지로 하위영역을 구분하였다.

적응성은 유연성, 접근성, 긍정적 기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직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며 유연성과 접근성이 높고 기분이 긍정적이어서 적응력이 높은 속성을 의미한다. 활동성 요인은 활동수준, 주의분산, 주의집중 등의 내용으로, 활동수준이 높고 주의집중은 낮으며 주의분산 정도가 높은 활발한 속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규칙성은 수면이나 식사, 일상습관의 규칙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들의 예를 들면, 9문항으로 구성된 적응성은 ‘내 아이는 새로운 사람들과 빨리 친해진다.’의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12문항의 활동성 요인에는 ‘내 아이는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닌다.’가, 9문항의 규칙성 요인에는 ‘내 아이는 몇 시에 자든지 다음날 잠에서 깨는 시간이 일정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유아의 기질 특성에 대해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답 및 점수 부여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된다. 점수의 범위는 30점~12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각 하위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하위영역의 기질 특징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기질의 하위요인별 점수를 환산할 때 적응성과 활동성 중에서 일부 문항들은 원 척도의 기준대로 역 채점 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별로는 적응성의 점수가 높으면 낯선 상황과 사람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활동성의 점수가 높으면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주의분산 정도가 높으며 주의집중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규칙성의 점수가 높으면 생활의 패턴이 일정한 것을 의미한다. 적응성, 활동성, 규칙성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72, .65, .69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축소·개정한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이며, 이를 번안한 김현미(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child)로 인한 스트레스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며 각 하위요인마다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부모의 고통은 우울, 역할제한,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수용성,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강화, 자녀에 대한 애정, 부모의 애착 등과 관련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자녀의 적응, 요구, 기분, 활동 수준과 관련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들의 문항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고통은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포기한다.’이고,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대부분의 경우, 내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낀다.’이며,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은 ‘내 아이는 나를 상당히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가 있다.

각 문항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어머니 자신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답 및 점수 부여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다. 점수의 범위는 36점~180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구분 없이 전체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때,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요인의 경우 12개 문항 중 3개 문항은 역채점하여 합산하였으며, 따라서 전체 점수의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하위요인의 경우 .83~.89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3) 정서조절능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1997)의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긍정적 정서통제의 9문항과 부정적 정서조절 15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정서통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 예시로는 ‘자신의 요구가 금방 만족되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 ‘또래가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 정서조절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쉽게 좌절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식 평정척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조절 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을 제외한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조절능력 전체점수를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정적 정서조절능력은 역채점하여 긍정적 정서통제와 합산하였다. 따라서 정서조절능력 전체점수의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로 측정한 문항내적 일치도를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통제는 .74, 부정적 정서조절은 .81, 정서조절능력 전체문항은 .94로 매우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 수행에 앞서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와 승인(IRB NO. 1040198-160812-HR-072-03)을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편의표집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위치한 8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하였고,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어머니에 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배부된 총 500부 중 304부가 회수되어 61%의 회수율을 보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기질, 양육스트레스, 정서조절능력 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기질의 하위요인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1982)이 제안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질, 양육스트레스, 정서조절능력의 상관관계

기질의 하위요인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기질의 하위요인 중 적응성 기질은 양육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r = -.35, p < .001$)을 보였고 정서조절능력과는 정적 상관($r = .42, p < .001$)을 나타냈다. 활동성 기질

<표 2> 기질의 하위요인, 양육스트레스, 정서조절능력의 상관관계 (N = 304)

	적응성	활동성	규칙성	양육스트레스	정서조절능력
기질					
적응성	1.00				
활동성	.06	1.00			
규칙성	.21***	-.19**	1.00		
양육스트레스	-.35***	-.01	-.08	1.00	
정서조절능력	.42***	-.07	.21***	-.62***	1.00

** $p < .01$, *** $p < .001$.

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정서조절능력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규칙성 기질은 정서조절능력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 = .21, p < .001$)을 보였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정서조절능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부적 상관($r = -.62, p < .001$)을 보였다.

2.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앞서 기질의 하위요인인 적응성, 활동성, 규칙성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과 규칙성은 양육스트레스 또는 정서조절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후 매개효과 검증 시 해당 변인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유아의 적응성 기질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유아의 적응성 기질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수행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에 함께 회귀시킨 후 3단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매개효과의 유무를 판단하였다(Baron & Kenny, 1986). 결과의 해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이 투입된 모형에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는 무의미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이 투입된 모형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2단계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부분매개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이 투입된 상태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를 보인다고 해석한다(정은혜, 2014).

유아의 적응성 기질,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분석하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적응성 기질이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39, p < .001$), 독립변인인 적응성이 종속변인인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33, p < .001$).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가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으며($\beta = -.55, p < .001$), 적응성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3, p < .001$)이 두 번째 분석단계에서의 영향력($\beta = .33, p < .001$)보다 줄어들어 양육스트레스가 적응성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5.65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적응성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적응성 기질이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적응성 점수가 낮아 부적응적인 기

〈표 3〉 적응성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N = 304)

단계	분석경로	β	R^2	F	Sobel Z
1단계	적응성 → 양육스트레스	-.39***	.12***	41.50***	5.65***
2단계	적응성 → 정서조절능력	.33***	.16	64.15***	
3단계	적응성 → 정서조절능력	.23***	.42	117.38***	
	양육스트레스 → 정서조절능력	-.55***			

*** $p < .001$.

질성향을 가진 유아들은 직접적으로 낮은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기도 하나, 이와 동시에 낮은 적응성 기질 성향은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높아진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기 자녀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그리고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및 전라도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304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은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 Windle & Lerner, 1986)를 재구성한 서주현(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Shields와 Cicchetti(1997)의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번안한 김지윤(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현미(2004)가 번안한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축소·개정한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매개변인의 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조절능력은 적응성 기질, 규칙성 기질과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적응성 기질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조용신과 정영숙(2000), 이수미와 민하영(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동성 기질과 규칙성 기질이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특정 기질 성향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혹은 불규칙한 특성의 기질성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없거나 미비하며, 낮은 적응적 성향만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아기에 자녀의 행동반경이 넓어

지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면서 자녀의 적응적 성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둘째, 기질의 하위요인 중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 정서조절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적응성 기질에 대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적응성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유아의 낮은 적응성은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러한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의 통합적 고찰을 통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한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한다는 선행연구결과(김현미, 2004),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낮아진다는 장계림(2010), 김혜진(2015)의 연구 등과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하여 설명하자면, 유아의 낮은 적응성 기질성향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먼저 그들 자녀의 기질적 성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기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육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면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육아관련 지원기관이나 보육기관에서는 자녀의 기질에 따른 적절한 양육방법을 소개하는 부모교육 또는 어머니 교실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활동성 기질은 정서조절능력 및 양육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경로의 구성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활동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수준의 활동성 기질이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들(김은영, 2005; 이수미, 민하영, 2007; 조용신, 정영숙, 2000; Crnic & Low, 2002)의 보고와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유아의 활동성은 정서조절능력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들(김현주, 2009; 박지숙, 2008; 임희수, 2001; 최지현, 2001; 최향준, 2010)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동성과 긍정적 정서통제 간에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박재운(2013)의 결과와 활동성이 적응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박윤정(2014)의 연구 결과와는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활동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활동수준이 높고 주의력이 낮더라도 유아의 발달특성 상 어머니들은 유아 자녀의 대근육 활동을 지지하며, 자녀에게 오랜 시간동안 주의집중 할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박윤정, 2014). 또한 지나치게 활동적인 성향의 유아들도 영아기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조절능력이 증가하여 활동성의 조절이나 통제가 일부 가능해지면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어머니들은 어린 연령의 유아일수록 올바르지 않는 행동에 대하여 통제보다는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김지현(2000)의 보고, 자녀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애정적인 양육을 더 많이 나타내며, 활동

성 기질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김미정(2010)의 보고 등은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간의 통계적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 유에 대한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넷째, 규칙성 기질의 경우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생리적 규칙성이 낮은 유아들은 어머니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신지연(2011)과 상반된 결과이다. 반면, 유아의 부정적인 기질요소가 오히려 어머니로 하여금 더욱 반응적이고 민감한 긍정적 양육기술을 발달시키게 하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유명희, 박성연, 1992;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에 근거할 때, 유아의 낮은 규칙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는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영아기 자녀와 달리 생활리듬에서 개별적으로 규칙성을 찾아가거나 혹은 유아의 불규칙성에 어머니 스스로 익숙해지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와 덜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즉, 영아기를 거치면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규칙성이 낮은 유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기질적 성향에 맞추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불규칙한 기질적 성향은 어머니들에게 스트레스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아마도 어머니들은 과도하게 일정한 생활패턴을 요구하기보다 유아의 생체리듬을 인정해 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영향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등 아버지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해보는 것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물론,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함에 있어 모두 어머니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아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을 어머니가 보고하는 이러한 방식은 유아관련 변인과 어머니 관련 변인 간의 상관이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관련 변인을 어머니가 아닌 교사나 다른 양육자가 보고하여 그 관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질이라는 유아 유기체변인의 특성이 정서조절능력이라는 발달특성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아와 어머니 간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인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연구함에 있어 유기체 변인뿐 아니라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그 영향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때, 환경적 변인으로서 유기체와 환경 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환경의 역동적인 측면이 포함되어야 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도연 (2015). 유아의 실행기능과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 (2014).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수줍음 및 의도적 통제의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4), 215-235.
- 김경하 (201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의 차이: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2004). 아동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 및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355-370.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8), 25-35.
- 김미정 (2010).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 최항준, 정경화, 이윤이 (2012). 영아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사회,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1), 551-575.
- 김은영 (2005).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훈육 방식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2007).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조절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0).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나, 이경님 (2008).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또래유능성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71-92.
- 김현미 (2004).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현주 (2009).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15). 부모양육행동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과 인지조절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2008). 부모-자녀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아동학회지**, 29(3), 15-31.
- 문혜련 (1998).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 (2003). 유아의 확산적 사고 및 정서적 기질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

- 학회지**, 10(2), 261-279.
- 박성연, 강지훈 (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윤정 (2014).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운 (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기질-양육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숙 (2008). 아동의 기질, 정서조절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성 (2012).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6(5), 253-275.
- 박진성, 박은희 (2010). 유아 가족배경변인과 가족탄력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4(1), 203-225.
- 박진아 (2011).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자의 심리적응 및 모-자녀 관계 관련 연구. **놀이치료연구**, 15(1), 43-56.
- 서석원, 이대균 (201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학회지**, 33(5), 279-298.
- 서주현 (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지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혜린, 이영 (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 신지연 (2011). 유아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5(2), 291-312.
- 안라리 (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희옥, 오선영, 김영희 (2007).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2), 1-22.
- 유명희, 박성연 (1992).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반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2(2), 173-191.
- 유우영, 이숙 (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45-61.
- 이경남 (2009).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7), 1-12.
- 이경남, 유혜선 (2014).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교사-영아 관계가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3(3), 165-190.
- 이수미, 민하영 (2007).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생활**

과학회지, 16(2), 219-225.

- 이영미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정 및 거부적 양육행동에 따른 남녀 유아의 자기조절. **가족과 문화**, 21(4), 41-61.
- 이정숙, 두정일 (2008). 유아의 적응적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3(2), 1-17.
- 이정희 (2000). 초등학교 교사의 열린교육에 대한 인식과 운영실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 (2008). 어머니의 수용·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모형분석-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2), 57-71.
- 임지혜 (2014).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 (2001).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장계림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희, 이지연 (2011). 모애착, 거부민감성, 정서조절능력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4(1), 35-53.
- 정은혜 (2014). 호프만의 공감이론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윤리교육 방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안나 (2012). 유아의 환경변인 및 정서지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창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14(1), 49-70.
- 조용신, 정영숙 (2000).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71-281.
- 조윤영 (2014). 걸음마기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기질 요구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영문 (2012). 유아 아버지 배경변인과 아버지 애착유형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15, 83-101.
- 최미숙, 김미숙 (2005).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간의 관계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2), 153-172.
- 최연희 (2001). 학령 전 아동의 기질, 부모의 훈육방식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 (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지현 (200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아동교육**, 10(1),

133-146.

- 최항준 (2010).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 (2016).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 탄력성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미혜, 이정자 (2010). 사례연구: 부모-자녀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및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까다로운 기질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연구*, 14(2), 61-77.
- 허순금 (2006).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요인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지은 (2015). 유아의 기질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역할.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세 (2007). 기질과 사회적 유능감이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2(2), 49-66.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4), 407-412. doi:10.1207/s15374424jccp2104_1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53-72. doi:10.2307/1166138
- Crní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doi:10.1111/j.1467-8624.1990.tb02889.x
- Crníc, K. A., & Low, C. (2002). Everyday stres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p. 243-2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enham, S. A., & Burton, R. (2003). *Social and emotional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ming for preschoolers*. NY: Kluwer/Academic Plenum.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doi:10.1037/0012-1649.30.6.928
-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8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55(6), 958-966. doi:10.1037/0022-3514.55.6.958
- Eisenberg, N., Liew, J., & Pidada, S. U. (2001). The relations of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with quality of Indonesia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Emotion*, 1(2), 116-136. doi:10.1037/1528-3542.1.2.116

- Park, S.,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18-227. doi:10.1037/0012-1649.33.2.218
- Rothbart, M. K., Ahadi, S. A., & Evans, D. E. (2000). Temperament and personality: Origins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22-135. doi:10.1037/0022-3514.78.1.122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pp. 99-166). NY: Wiley. doi: 10.1002/9780470147658.chpsy0303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doi:10.1037/0012-1649.33.6.906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doi:10.2307/270723
- Windle, M., &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13-230. doi:10.1177/074355488612007

논문투고: 17.06.15
수정원고접수: 17.08.01
최종게재결정: 17.08.19